

성균중국연구소(SICS)
연구보고서 24-01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2024년 대만 선거 특별리포트

: 양안 거대담론의 한계와 제3정치세력의 약진

2024.1.14.

1. 선거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의 승리와 민중당의 약진
2. 당선자 분석
3. 선거 과정 분석
4. 향후 전망
5. 종합 평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양안관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 인용시 "성균중국연구소(SICS) 연구보고서(24-01)"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선거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의 승리와 민중당의 약진	1
1. 대선 결과	
2. 총선 결과	
II. 당선자 분석	2
1. 총통 당선자 라이칭더는 누구인가	
2. 부총통 당선자 샹오메이친은 누구인가	
3. 중국의 라이칭더에 대한 경계심 표출 배경	
4. 라이칭더에 대한 미국의 선호 이유와 우려	
III. 선거 과정 분석	7
1. 국민당의 탈친중 노선	
2. ‘92 컨센서스’의 몰락	
3. 후보 단일화 실패	
4. 청년 세대의 반란과 민중당 후보	
IV. 향후 전망	9
1. 중국의 압박	
2.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진당 집권의 한계	
3. 라이칭더의 청중 비용(audience cost)	
V. 종합 평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양안관계	11
부록1. 라이칭더 당선 인사 기자회견 발언 전문	
부록2.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 입장 발표 전문	
부록3.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I 선거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의 승리와 민중당의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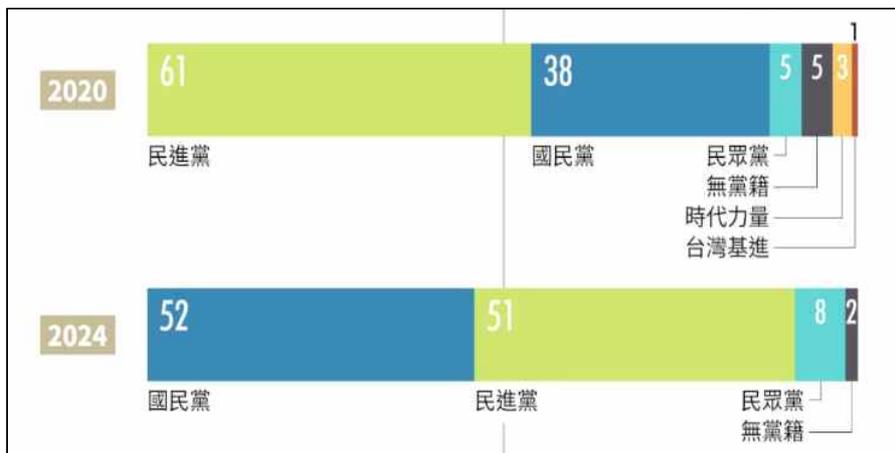
1. 대선 결과



출처: 대만 중앙통신사

- 민진당 후보 총통·부총통에 당선: 1월 13일 치러진 2024년 대만 대선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샤오메이친 총통·부총통 후보가 약 559만표를 얻어 득표율 40.05%로 제16대 대만 총통·부총통에 당선.
- 과반 지지 획득 실패: 2020년 대선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58%의 득표율로 총통에 당선되었던 것에 비하면 18%가 낮아진 것으로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 총통이 됨.
- 제3의 정치세력 약진: 2020년 대선에서 청년층이 민진당의 차이잉원을 선택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청년세대가 민중당의 커윈저(柯文哲) 후보에 더 많이 투표하면서 제3 정치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짐.

2. 총선 결과



출처: 대만 중앙통신사

- **국민당 승리와 여소야대 국면 형성:** 함께 치러진 의회 총선에서는 의회 의석수 113석 중 국민당이 52석, 민진당이 51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하면서 민진당의 입법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음.
- **민중당 캐스팅보트 획득:** 국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됨. 그러나 어떤 정당도 의회 의석수 과반(57석)을 넘지 못하면서 양대 정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제3 정치세력의 협조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됨.

II 당선자 분석

1. 총통 당선자 라이칭더는 누구인가

- **광부의 아들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 1959년생으로 가난한 광부 집안 출신으로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광산 재해로 부친을 잃음. 모친이 6남매를 부양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만의 명문인 건국(建國)고등학교와 대만(臺灣)대학교 의대, 성공(成功)대학교 의학원 졸업.
- **정치 입문:** 내과 의사의 길을 걷다가 1994년 정계에 입문. 1996년에 당시의 국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대회 대표로 당선. 이후 민진당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촉망받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로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침.
- **정치 지도자의 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타이난(臺南) 시장을 역임. 차이잉원 총통에 의해 2017년에 행정원장, 2020년에 부총통에 지명됨.
- **민진당의 적자(嫡子):** 30여년 동안 정계에 몸담아 오면서 한 번도 스캔들에 휩싸이지 않았을 정도로 신중하고 절제된 정계 활동 이어옴. 가족들도 정치나 미디어와 담을 쌓으며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보임. 서민 출신의 본토주의 엘리트로 대만 독립과 민주화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민진당 내 핵심 파벌인 '신조류파'로 민진당의 적자로 여겨짐.
- **독립의 아이콘:** 대만독립에 대해 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함. 그는 "대만의 주권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대만은 이미 독립 상태에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만 정계에서 '독립'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인물.

- 양안정책에서 차이잉원 노선 계승 선언: 양안 정책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 ▲국방력 강화를 통한 억지 ▲경제안보 강화 ▲민주주의 국가 간의 파트너십 강화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함. 특히 국방력 강화와 현상 유지를 강조. 미국 방문시 그의 독립 노선에 우려를 품고 있는 워싱턴을 온건한 태도로 안심시킴. 미국 행정부로부터 “트러블 메이커”라는 지탄을 받은 천수이볜 총통(2000-2008년 집권)과는 달리 온건하고 신중한 정책을 유지해온 차이잉원 노선 계승을 공약함.

2. 부총통 당선자 샤오메이친은 누구인가

- 선거의 러닝 메이트였던 부총통 당선자 샤오메이친(蕭美琴)은 1971년 8월 7일생(52세)으로 일본 고베시에서 대만인 부친과 미국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남. 미국에서 성장(1971~2002)하며 오벌린 칼리지와 콜롬비아대 정치학 석사과정에서 수학했으며 미국 국적을 보유함.
- 부친은 타이난 신학원 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대만독립과 민주주의의 사상적 자원 역할을 한 대만 장로회 출신.
- 차이잉원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 주미대표를 역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입법위원을 지냈으며 주로 외교안보 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외교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음.
- 차이잉원계 파벌에 속하며 차이잉원 총통과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 워싱턴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라이 당선자와 미국의 대화 채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 베이징은 라이 총통 당선자와 샤오 부총통 당선자의 조합을 “가장 위험한 조합”으로 평가하고 있음.

			
	라이칭더 (賴清德)	허우여우이 (侯友宜)	커원저 (柯文哲)
소속정당	민주진보당	중국국민당	대만민중당
득표율	40.05%	33.49%	26.46%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세 (1959년 10월생) -대만대 의대 졸업 -하버드대 공공보건학원 석사 -성공대 의대 내과 의사 -1996-2010 입법위원 -2010-2017 타이난 시장 -2017-2020 행정원장 역임 -2020-현재 부총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세 (1957년 6월생) -중앙경찰대 범죄예방대학원 박사 -2006-2008 민진당 천수이볜 총통 발탁으로 경찰청장 역임 -2008-2010 경찰대 총장 역임 -2010-2018 국민당 신베이시 시장 지명으로 부시장 역임 -2018년 현재 신베이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세 (1959년 8월생) -대만대 임상의학대학원 박사 -대만대 외과 의사 -2014년 무소속으로 민진당의 협조 하에 타이베이 시장 당선 -2018년 무소속으로 민진당과 결별 후 타이베이 시장 당선 -2019-현재 대만민중당 설립 및 주석 역임
출처: 성균중국연구소 정리			

3. 중국의 라이칭더에 대한 경계심 표출 배경

○ 중국의 공식 반응

1)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 1월 13일 23시 경,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만문제를 다루는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이 대변인 명의로 대만 선거결과에 대한 입장(<부록 2>) 을 발표함.

2) 중국 외교부

-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을 촉구함.
- 영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라이칭더의 총통 당선 축하에 대해 주영국 중국대사관은 영국측의 '잘못된 행동(有矣错误做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힘.

- 향후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다른 서방국가들의 대만정책 변경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보임.
- **차이잉원 8년간의 대화 단절:** 베이징은 민진당이 집권한 지난 8년 동안 차이잉원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하는 '92 컨센서스'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대만 당국과의 대화 채널을 단절해 왔음.
- **라이 당선자에 대한 신뢰 부족:** 라이칭더가 양안의 긴장 국면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시진핑과의 만남을 갖고 싶다"거나 "중국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등하게 교류하겠다"는 나름의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은 강경함.
- **중국의 평가:** 오히려 라이 후보가 양안 교류에 대한 의지보다는 두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협상을 암시하고 있다고 비판. 또한 그가 당선될 경우 대만 당국과의 어떠한 대화와 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예컨대 중국 국무원 판공실은 라이 후보가 "트러블 메이커"이자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은 "분리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셰펑(謝鋒) 주미대사는 라이 후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을 향해 돌진하는 회색 코뿔소와 같다"고 평함.
- **근본주의 파벌의 정치인:** 중국이 라이칭더 후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가 민진당 출신의 역대 지도자인 천수이벤이나 차이잉원과 다른 정치적 무게를 갖는 인물이기 때문. 천수이벤이나 차이잉원이 대중적 인기를 기반으로 민진당 집권 플랜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라면, 라이칭더는 민진당의 핵심 파벌이자 근본주의 그룹인 '신조류파'에서 30여년간 민진당의 적자로 성장해온 인물. 이로 인해 천수이벤이나 차이잉원과 달리 집권 전부터 이미 이례적으로 그를 기명 비판하고 있음.
- **친미·친일 스탠스 강조:** 라이 당선자는 반중·친미라는 민진당의 성향에 더해 특히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임. 정치인이 된 후 일본을 여러 차례 찾아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해 옴. 2019년엔 5일간 일본을 방문해 노다 요시히코, 모리 요시로, 가이후 도시키 등 역대 총리들을 만나며 일본 정계와의 유대를 과시.
- **커지는 중국의 경계심:** 중국에선 라이 당선자가 미국·일본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연대를 강화할 것이란 경계심을 키우고 있음.

4. 라이칭더에 대한 미국의 선호 이유와 우려

-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 추진:** 천수이볜 총통처럼 돌발적으로 양안 갈등을 유발시킬 인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실행에 도움이 될 라이 당선자를 선호함.
-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 라이 당선자가 차이잉원 정부의 신중한 양안 정책을 계승한다면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 차이잉원처럼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방력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노선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
- **현상유지(status quo) 견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 및 대만 담당 선임국장을 역임하고 미국 재대만협회(AIT; 주대만 미국대표부에 해당) 회장을 맡고 있는 로라 로젠버거(Laura Rosenberger)는 지난 10월 미국이 베이징과 타이베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현상(status quo)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 미국은 라이 당선자가 중국을 도발(provocation)하지 않기를 바램.
- **미국의 우려:** 지난 11월 말 바이든 정부에 중국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중국 전문가 그룹인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코넬대 제시카 첸 와 이스, 콜롬비아대 토머스 크리스텐슨이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차단(deterrence)”하고 평화적인 해법의 가능성을 “보장(reassurance)”하기 위해 민진당이 1991년 당헌에 삽입한 대만독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주장. 이는 미국이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것을 우려하여 당선 전에 라이에게 미국의 우려를 간접적인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것.
-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대만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 바, 반중·독립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이번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힘. 최근 미중간 가드레일을 설정하는 등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방침을 재천명했고 이와 관련해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임.

Ⅲ 선거 과정 분석

1. 국민당의 탈친중 노선

- 대만의 친중 여론의 몰락: 2024년 대만 대선은 2020년 대선보다는 홍콩 이슈의 영향을 덜 받은 측면이 있지만,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진압의 여파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평가됨. 2019년 이후 홍콩에서 일국양제 약속이 훼손되고 자유가 크게 제약되면서 대만 여론에서 취약했던 중국과 일국양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짐. 이러한 여론은 2020년 대만 대선의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후 대만 선거에서 친중 후보가 설 자리가 좁아짐.
- 대만 대선에서의 친중 노선의 몰락: 세계 언론에서 국민당 후보를 친중 후보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임. 허우여우이(侯友宜)가 국민당 총통후보로 선출된 것은 그가 경찰 출신이자 본성인의 뿌리를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로서 그가 국민당 내에서 가장 친중적이지 않은 후보였기 때문임. 2020년 대선에서 국민당 후보로 나왔던 한귀위가 개인적 매력으로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패한 것은 그가 외성인 2세로 친중 혐의를 공략당했기 때문.
- 중국에서 제2의 리덩후이로 평가되었던 국민당 후보: 허우여우이는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교차점도 없고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음. 서민 가정에서 성장한 대만 본토 출신으로 천수이볜 총통에 의해 경찰 최고위직에 발탁된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당에서도 그 정체성을 의심받던 인물임. 골수 국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의심을 받던 그가 국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친중 후보”라는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 이로 인해 베이징으로부터도 그가 제2의 리덩후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선거 초기 대만민중당 후보인 커원저보다도 중국으로부터의 선호도가 떨어짐.

2. ‘92 컨센서스’ 의 몰락

- 세 후보 모두 시진핑 버전의 92 컨센서스와 거리: 베이징은 마잉주 시기(2008-2016)를 그리워하며 대만 총통 후보들에게 양안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를 의미하는 ‘92 컨센서스’의 수용을 강조해 왔지만, 어느 후보도 중국이 원하는 ‘92 컨센서스’의 수용을 선언하지 못함. 대만 여론에서 ‘92 컨센서스’의 수용이 ‘친중’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표를 깎아 먹을 것이기 때문. 허우 후보도 선거 운동 초기 ‘92 컨센

서스'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친미 노선을 강조.

- **국민당 후보에 의해 수정된 92 컨센서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허우 후보의 공식적인 수사는 “중화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92 컨센서스를 수용하며, 서로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되 서로의 통치권은 부정하지 않는다.”인데 이러한 난해한 언술을 통해 92 컨센서스라는 독이 든 성배를 피하고자 함. 허우 후보는 또한 작년 9월 미국 방문 기간에 양안 문제의 해법으로 전쟁 억지(deterrence), 대화(dialogue), 긴장 완화(de-escalation)를 의미하는 “3D 전략”을 제안했는데 미국이 좋아할만한 수사였음. 이후 선거전에서 ‘3D 전략’을 자신의 대중국 전략으로 내세우며 ‘92 컨센서스’ 논쟁을 희석시킴.
- **탈(脫)마잉주 노선:** 결과적으로 허우 후보의 양안 정책 목표는 마잉주 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대만해협의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과의 대화를 도모하면서 대만 방어를 위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음. 허우 후보는 선거 유세 중에 보통화보다는 대만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대만 본토주의 정체성을 강조했고, 대외적으로 국민당의 친중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함.

3. 후보 단일화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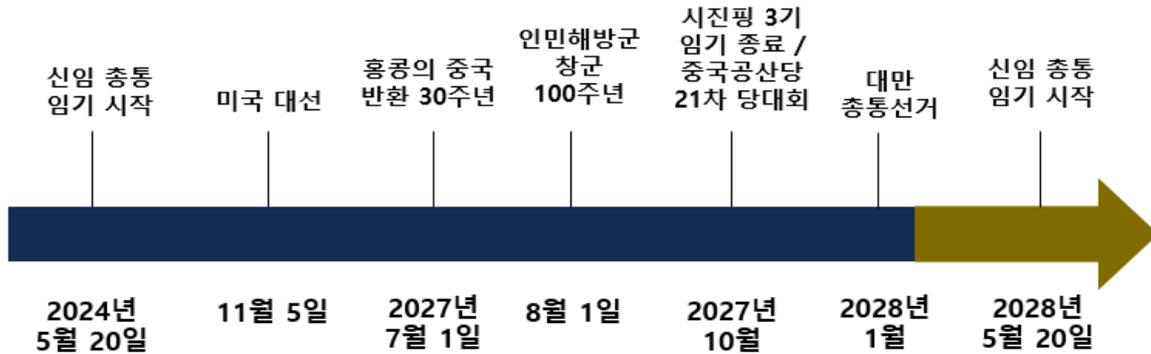
- **국민당과 민중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 선거를 전후로 대만 여론 지형에서 60%에 달하는 대만인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했고 이를 위해 국민당과 민중당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협상 실패로 3자 구도를 유지하게 됨. 단일화 실패가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국민당 후보가 청년들에게 주목받을 매력과 이슈를 선점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청년 세대의 반란과 민중당 후보

- **양대 정당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만과 민중당 커원저의 부상:** 대만 청년 세대는 거대 담론으로서의 “전쟁 대 평화” 혹은 “민주 대 독재”보다는 일자리, 저임금, 주거 문제 등 민생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따라서 기성 정치인과 다른 스타일을 보이며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커원저 후보에게 공명을 일으킴.

IV 향후 전망

2024년 대만 대선 이후 Timeline



출처: 성균중국연구소 정리

1. 중국의 압력

- 중국은 단기적으로 군사 및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만을 압박할 것. 5년 내에 대만 침공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중국과 대만의 관계 악화는 양안과 주변국들에게 부담을 줄 것.
- 선거 기간 동안 중국은 대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고 있음.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푸젠성과 대만을 묶어 통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시범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음. 홍콩의 사례로 인해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경제통합은 홍색자본(red capital)의 유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커짐.

2.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진당 집권의 부담

- 차이잉원 정부 8년간은 민진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유지하며 국내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당-민중당 연합의 견제, 혹은 민중당에 대한 지난한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라이칭더 정부는 여러 한계를 노정할 것임.

3. 라이칭더의 청중 비용(audience cost)

- 라이칭더는 민진당의 근본 이념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중국과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획기적인 화해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것. 당선 결과가 나온 1월 13일 밤 당선 소감 연설에서 중국이 수용할만한 내용을 내놓지 않았고 중국의 “외교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위협(文攻武嚇)”에 맞서 대만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베이징이 불쾌해 할만한 내용을 담음(<부록 1> 참조).
- 중국은 5월 20일 라이칭더의 취임 연설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을 통해 대만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강력한 군사훈련을 펼칠 가능성이 있음. 군사적 압박은 5월 20일 취임 전까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 압박의 범주는 비판 메시지(文攻), 군사훈련(武嚇), 경제적 압력(經貿施壓)로 나눌 수 있는데, 라이칭더 등 대만독립 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향후 대화 단절에 대한 여론 압박,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군사훈련과 대만을 단기적으로 봉쇄하는 군사적 압박을 시도할 수 있음. 또한 2,509개의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에 대한 보복과 ECFA 539개 상품에 대한 무관세 철폐 등 경제적 혜택을 철회함으로써 대만 여론을 흔들 가능성이 있음.
- 중국공산당의 대만정책은 변함없이 분할지배(divide and rule)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임. 즉, 민진당 정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만 내 친중 세력과 민간에 대해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는 것.
- 라이 후보 집권 이후 대만 정부가 적극적인 독립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대만 문제에 깊이 연루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 정부의 견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 그러나 라이칭더는 탈중국화 정책과 중화민국 정체성을 약화하는 움직임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라이 당선자가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절제된 발언을 하겠지만 민진당 내부와 대만의 정치적 동학으로 인해 라이 후보가 양안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92 컨센서스’를 수용하거나 민진당 당헌의 ‘대만독립’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를 원한다는 원칙적인 발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민진당 출신의 전임 총통들이 취임 연설에서 동일하게 표명한 것으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베이징에 의해 받아들여진 적은 없음. 중국공산당의 전략문화에서 통일전선전술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당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통치정당성을 강화하는 양

상을 보일 것.

-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조정 국면이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올 11월 미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V 종합 평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양안관계

- 대만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책임은 한 쪽만의 책임으로 규정할 수 없음.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있음. 다만 권력의 크기만큼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의도만큼 책임이 따를 것임.
-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의 대만 통일 담론은 180도 바뀌었음. 후진타오 시기까지는 현대화를 달성하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부산물이라고 여겼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통일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결국 중국 스스로 현상변경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체제의 명운과 묶어 버림으로써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은 폐기되었음.
- 이로 인해 “미국을 믿지 못하지만 중국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곤경” 앞에서 대만의 선택은 국익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더라도 친미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안보 위기를 계기로 대만의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념적 근본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음.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반중 정서를 활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전략만이 남게 됨.
-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시도하고 중국의 도덕성과 중국공산당의 폭력성을 공략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또한 위기 국면을 활용하여 대만이 미국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냄.
- 민진당 후보의 승리로 시진핑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대만에 대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로 인해 대만해협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겠지만, 대만 대선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될 것임.
-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은 이미 “관리되는 경쟁(managed competition)”에 합의했고 미중 간의 소통 채널이 복구되고 있음. 양안의 위기는 미중관계에서 파생하는 것이고 양안의 위기를 관리할 힘도 미중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양안관계의 구조임.

부록 1 라이칭더 당선 인사 기자회견 발언 전문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중화민국 제16대 총통·부총통과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쓰고 세계를 향해 대만이 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 대만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명의 경쟁자가 보여준 민주적인 태도에 감사합니다. 나는 방금 그분들의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또한 그들이 이끄는 정당이 의회 의석을 확보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래에 국가를 위해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세계 대선의 해에 가장 주목받는 첫 번째 선거로서 대만은 민주 진영의 첫 번째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승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대만이 민주주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중화민국 대만은 계속해서 세계의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대만 국민들이 행동으로 외부세력의 개입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우리들의 총통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세 총통·부총통 후보 중 라이칭더·샤오메이친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음으로써 우리 나라가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갈 것이며, 방향을 바꾸거나 되돌아 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차이잉원 총통과 국정 파트너들이 8년 동안 최선을 다해 대만의 개혁과 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져 준 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은 이 토대 위에서 나라가 안정되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민진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겸허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능력 있는 정부”와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민의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완전히 존중합니다. 새로운 의회 구조에 직면하여 대만은 “소통, 협상, 참여,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두 경쟁 후보의 정견과 주장을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고 이롭게 하며 국가의 발전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국정 방침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인사(人事) 방침은 민주대연맹의 정신을 견지하여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기용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각계의 추천을 환영할 것이며 함께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의 국정은 모든 당파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의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아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고 시급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넷째,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 예컨대 노동보험과 건강보험의 재정 영속성에 대해서는 정책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토론의 기반을 확대하고 여론의 참여를 널리 수용하여 정당의 차이를 넘어 사회의 최대 공약수를 모색할 것입니다.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총통으로서 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나는 중화민국의 헌정체제에 따라 비굴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은 의연한 태도로 현상(現狀, status quo)을 유지할 것입니다. 대등·존엄의 전제 하에 교류를 통해 봉쇄를 대체하고 대화로 대결을 대체하고, 자신 있게 중국과 교류 협력을 전개하여 양안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 평화 공영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위협(文攻武嚇)”에 맞서 대만을 지키겠다는 각오도 있습니다.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을 선택해 주신 대만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모든 선거 경쟁 중의 충돌과 걱정은 여기서 그쳐야 합니다. 2300만 인민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계속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만 중앙통신사)

부록 2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 입장 발표 전문

이번 대만에서 치러진 두 선거(대선 및 총선)의 결과는 민진당이 대만의 주류 여론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이번 선거는 양안 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양안 동포들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공통의 염원을 바꿀 수 없으며, 조국이 결국에는 통일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대세를 막을 수 없다.

대만 문제 해결과 조국 통일 완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할 “92 컨센서스”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의 분열적 행동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 대만의 관련 정당, 단체, 각계의 인사들과 함께 양안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양안의 통합과 발전을 심화할 것이다. 또한 함께 중화 문화를 발전시키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할 것이다. (출처: 중국 신화사)

부록 3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 입장 발표 전문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이 이미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논평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다. 대만 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하나의 중국만 있을 뿐이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대만 독립”의 분열 행위에 반대한다. “두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컨센서스와 확고한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안전핀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의 분열 활동에 반대하고 국가통일을 쟁취하고 완수하려는 중국 인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SICS)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09호

소장실: 02•740•1650 / 연구교수실: 02•740•1651~4 / 대표전화: 02•740•1654

대표메일: sics@skku.edu / 홈페이지: <http://sics.skku.edu>

Copyright 2013 Sungkyun Institute of China Studies, All rights reserved.